

제7강 - 아킬레우스의 죽음과 트로이아 전쟁의 종료

(1교시)

◆ 아킬레우스의 죽음

※ 학습목표

아킬레우스의 죽음에 대해 알아본다.

▲ 프리아모스를 보호해 데려다준 아킬레우스

마부 한 명만을 데리고 헥토르의 시신을 돌려받으러 아킬레우스에게 찾아가는 프리아모스를 헤르메스가 안전하게 인도한다. 그러나 돌아가는 길에는 헤르메스도, 어떤 신도 도와주지 않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리스연합군진영을 지나서 자신의 트로이아성까지 무사히 아들의 시신을 옮길 수 있었을까.

아킬레우스가 직접 트로이아 성 앞까지 프리아모스 왕을 호위해서 데려다준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말을 길들이는 헥토르의 장례를 치렀다.’ 24권 804절, 마지막 구절이다. 여기서 ‘그들’은 트로이아 사람들이다. ‘사람 잡는 헥토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왔었는데, 마지막 구절에선 ‘말을 길들이는 헥토르’라는 묘사가 나온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트로이아의 당시생활이 유목생활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 트로이목마 없는 트로이아 전쟁?

- 『일리아드』는 트로이아 전쟁 전체를 묘사한 작품이 아니다.

트로이아 전쟁하면 트로이목마가 떠오른다. 그러나 트로이아 전쟁을 다룬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에는 트로이목마가 나오지 않는다. 이 방대한 영웅서사시의 마지막은 헥토르의 장례가 끝이 났다는 구절로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헥토르의 장례 이후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일리아드』에는 10년의 전쟁기간 중 9년의 어떤 특정사건(총사령관 아가멤논과 아킬레우스 사이의 분노로부터 헥토르의 장례가 치러지는 순간까지)만이 묘사가 되어 있다.

트로이아 전쟁의 나머지 부분은 호메로스의 다른 작품 『오뒷세이아』나 역시 트로이아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다른 비극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시간적 배열을 맞춰나갈 수 있다.

▲ 헥토르 사후 트로이아 전쟁의 양상

트로이아 성을 구하기 위해 대단히 호전적인 아마존 여전사들이 펜테실레이아의 지휘 아래 출전한다.



아킬레우스와 펜테실레이아

그러나 이들의 출전도 큰 도움이 되진 않는다. 아마존의 족장이었던 펜테실레이아 역시 아킬레우스의 창에 죽는다. 아마존 여전사들의 도움도 트로이아성의 운명을 구하지는 못했다.

▲ 사랑에 빠진 아킬레우스

아마존 여전사들과의 대결 후 아킬레우스에게는 대단히 특이할만한 사건이 벌어진다. 폴릭세네라고 하는 여인과 사랑에 빠진 것이다. 폴릭세네는 프리아모스의 딸로 헥토르의 누이이자 트로이아의 공주다. 헥토르의 시신을 찾아가는 트로이아 성문 밖까지 프리아모스를 호위해준 아킬레우스는 그때 나와있던 폴릭세네를 보고 사랑에 빠진 것이다. 그래서 아킬레우스는 은밀하게 프리아모스에게 전령을 보낸다. 폴릭세네와 혼인할 수 있게만 해준다면 그 즉시 폴릭세네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트로이아 진영에서 힘을 모아 싸우겠다는 내용이다. 프리아모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매력적인 제안이다. 그래서 프리아모스는 혼담을 벌일 날짜와 장소를 정해 전령에게 전하게 한다. 이 때 파리스가 모든 대화의 내용을 숨어서 듣게 된다.

▲ 아킬레우스의 죽음

아킬레우스는 전령이 가지고 온 소식을 전해 듣게 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혼담을 벌이게 되는 장소는 아폴론 신전이다. 아폴론은 아킬레우스에게 복수하기 위해 트로이아 진영을 수호하게 된 신이다.

아킬레우스는 혼담을 벌이기로 한 날, 예의를 갖추기 위해 무장을 하지 않고 약속시간보다 일찍 나와 프리아모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때 파리스는 신전 기둥 뒤에 숨어있다 독이 묻은 화살로 아킬레우스를 쏘았다. 그 화살은 아폴론의 은궁이었다고 전해진다. 파리스가 이것을 빌려 아킬레우스를 쏘게 되고 그 은궁은 아폴론의 인도를 받아 아킬레스건에 정확히 명중한다.



아킬레스 건에 화살을 맞고 죽어가는 영웅 아킬레우스의 모습

▲ 신탁을 이행한 아킬레우스의 삶

아킬레우스의 죽음은 막대한 공을 세운 영웅의 최후로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아킬레우스의 삶은 이미 신탁을 이행하는 삶이었다. 최초의 신탁은 ‘트로이아에 가게 되면 짧지만 영광스러운 삶을 살 것이고, 가지 않으면 오래 살겠지만 아무 명성도 얻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이었다. 이에 아킬레우스는 영광스런 삶을 선택해 트로이아로 향하고 두 번째 신탁을 받는데, ‘아폴론의 아들을 죽이면 너 역시 죽음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이었다. 아킬레우스는 아폴론의 아들을 죽이고 말았다. 또 내려진 신탁은 ‘트로이 성의 함락을 목전에 두고 전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헥토르와 일전을 벌이기 위해 헤파이스토스가 직접 쥐어준 투구와 갑옷을 착용하고 출전하는 순간, 포세이돈이 선물한 예언의 능력을 가졌던 크산토스라고 하는 말 또한 이번 출전에서 아킬레우스가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임을 예언했다.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주인공만 놓고 본다면, 트로이아 전쟁은 마이클 우드가 해석하듯 지중해 무역권을 놓고 그리스와 트로이아가 벌였던 전쟁이 아니라 아킬레우스의 신탁이 이루어지는 전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의 죽음은 왜 이렇게 그려졌는가. 그것은 아킬레우스의 최초의 분노의 원인이 사랑하는 여인(브리세이스)와 관련되어있었던 것처럼 그의 죽음 역시 사랑하는 여인에 의한, 그리고 신탁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아킬레우스의 장례

어떤 비극작품에 의하면 아킬레우스의 장례식은 어머니 테티스여신과 뮤즈여신에 의해 성대히 치러졌다고 한다. 아킬레우스의 무덤은 어디에 있는지 지금도 알려져 있지 않다. 동양인 중 가장 큰 영토를 확장했던 칭기즈 칸의 무덤도 알려져 있지 않다. 칭기즈 칸은 실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덤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칭기즈 칸의 자신의 무덤을 알리지 말라고 유언했다. 생전에 자신이 지배했던 영토도 시간이 흐르면 누구에게 지배당할지 모른다. 그러면 자신의 시신이 훼손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킬레우스의 무덤도 테티스여신과 뮤즈들에 의해 은밀히 감추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아킬레우스는 죽어서도 폴릭세네를 잊지 못해 그의 영혼이 그녀를 요구함에 따라 폴릭세네를 아킬레우스의 무덤에 산채로 합장했다고 전하는 비극작품도 있다.

제7강 - 아킬레우스의 죽음과 트로이아 전쟁의 종료

(2교시)

◆ 막을 내린 트로이 전쟁

※ 학습목표

10년에 걸친 트로이아 전쟁이 어떻게 끝나는지 알아본다.

▲ 트로이 패배의 운명과 마지막 신탁

헥토르와 함께 아킬레우스마저 전장에서 사라지고 트로이아 전쟁의 상황은 다시 백중세가 된다.

그러나 아킬레우스와 헥토르가 맞대결을 벌일 때 제우스는 두 영웅의 운명을 달았다. 헥토르의 운명이 하데스로 기운 것은 헥토르만의 패배가 아니라 트로이 전체의 패배를 암시한다.



그때 트로이아 전쟁과 관련된 마지막 신탁이 칼카스에 의해 전해진다. ‘헤라클레스의 화살이 있어야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내용이다.

트로이아 전쟁은 헤라클레스의 사후에 벌어진 전쟁이다. 헤라클레스는 마지막 순간 네소스의 피가 묻은 예복을 찢고 제우스를 위해 준비했던 제단에 자신이 올랐을 때 장작에 불을 붙여준 시동 필록테테스에게 감사의 표시로 자신의 상징인 활과 화살을 전해주게 된다. 신탁에 따라 필록테테스는 헤라클레스의 활과 화살을 들고 지중해를 건너 트로이아로 오게 된다.

▲ 팔라디온을 훔친 오뒤세우스와 디오메데스



트로이의 성 안으로 숨어들어가는 오뒤세우스와 디오테메스

필록테테스가 트로이아로 오는 동안 그리스연합군의 영웅 중 가장 지략이 뛰어난 오뒤세우스는 디오테메스 함께 은밀하게 밤을 틈타 트로이아 성 안으로 잠입한다. 그리고 팔라디온을 훔쳐온다. 팔라디온은 고유명사로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거룩한 아테나 여신상’이다. 아테나 여신을 조각해 놓은 수많은 조각상 중에 단 하나의 ‘팔라디온’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지는 조각이다. 정확한 정보는 전해지지 않지만 신화학자들의 추측에 따르면 전체가 황금으로 이루어진 아테나 여신상이었을 것이라고 한다.

▲ 왜 팔라디온을 훔쳤을까

필록테테스가 활과 화살을 가지고 오면 전쟁이 끝난다. 그런데 왜 가장 현명한 영웅이었던 오뒤세우스와 디오테메스는 목숨을 걸고 팔라디온을 훔쳤을까.

‘모든 인간에게는 자신에게 정해진 운명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인간의 운명은 자신이 노력한 만큼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무리 운명이 정해져있는 것을 믿는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운명은 없다. 그리스신화시대에서 오늘로 이어지는 속담 중 가장 유명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신(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것이다.

칼카스의 신탁에 의해 승리가 예견됐다 하더라도 오뒤세우스가 팔라디온을 훔쳐온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 그리스신화의 가장 특징적인 교훈으로 바로 이런, 인간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한 후 신에게 운명을 맡긴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일견 쓸데없어 보이지만 오뒤세우스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노력을 다하는 의미에서 팔라디온을 훔친 것이다.

▲ 트로이 목마

오뒤세우스는 팔라디온을 훔쳐온 것뿐만 아니라 날이 밝기 전 트로이 성 밖에 거대한 크기의 목마를 가져다 놓는다. 그리고 날이 밝음과 동시에 모든 그리스 병사들은 자신의 배에 올라타서 지중해를 빠져나온다.

트로이아 성의 사람들은 날이 밝자 엄청난 충격을 받는다. 아침에 태양빛을 받아 가장 먼저 빛나던 팔라디온이 온데간데없는 것이다. 이것을 잃어버렸다면 아테나 여신은 크게 분노할 것이다. 게다가 성곽의 병사들은 어마어마한 크기의 목마의 출현을 알린다.



터키 트로이의 트로이 목마

목마의 파편들은 계속 발굴되고 있다. 모양은 유추한 것이고, 실제의 크기는 이것보다 크다. 오뒤세우스와 그리스 정예병들이 숨어있을 어마어마한 크기에 높이는 트로이 성채보다 높았다.

또한 파수병들은 그리스 병사들이 지중해를 빠져나갔다고 전한다. 실제로 그리스연합군 선단이 트로이아에서 나가지만 돌아간 게 아니라 트로이 앞에 있던 섬 뒤쪽으로 숨은 것이다.

▲ 트로이 목마를 둘러싼 논쟁

여신의 분노를 어떻게 가라앉힐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 트로이 성의 주민들의 의견이 두 가지로 나뉜다. 팔라디온을 흠치고 목마를 갖다놓은 것이 그리스인들이라는 것엔 이견이 없다. 그러나 한쪽은 트로이 목마가 그리스인들이 팔라디온을 흠쳐가면서 여신의 분노를 두려워해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한 쪽은 팔라디온을 흠쳐가면서 현혹시키기 위해 목마를 갖다놓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자의 의견에 따르자면 목마는 여신의 희생제물이기 때문에 성으로 가져와 성대한 제례를 지내야 하고 후자의 주장을 따르자면 목마를 없애버려야 한다. 그걸 가장 강력히 주장한 사람은 라오쿤이었다.

- 라오쿤의 죽음

라오쿤은 포세이돈 신전의 신관이다. 라오쿤은 그리스인들이 팔라디온을 흠쳐가면서 동시에 우리를 속이기 위해 가져다 놓은 것이니 이것을 잘 드는 칼로 베어버리거나 낭떠러지로 떨어뜨리거나 태워야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들이 펼쳐지고 있는 사이 시논이라고 하는 그리스 병사가 잡혀온다. 이 또한 오뒤세이아의 계략이다. 트로이아 병사들이 문초를 하자 그는 팔라디온을 가져간 사립아 오뒤세우스고 여신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가져다둔 것이라고 한다.

라오쿤이 이 자 역시 계략이라며 믿지 않는다. 그 때 바다에서 올라온 거대한 뱀이 올라와 라오쿤과 두 아들을 죽인다. 포세이돈이 보낸 뱀이다.



포세이돈이 왜 자신의 신관을 죽였을까. 트로이아 사람들은 라오쿤이 포세이돈 신의 뜻을 잘못 읽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제우스의 운명의 저울로 트로이아의 운명이 예견되어 있었다. 포세이돈은 제아무리 자신의 신관이라도 제우스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 그래서 희생시킨 것이다. 트로이아 사람들은 목마가 제물로 받아들이고 희생제사를 지내기 위해 트로이 목마를 성안으로 끌어들인다.

▲ 허물어진 트로이성과 그리스 연합군의 승리

목마의 높이는 트로이 성곽보다 높았다. 트로이아인들은 그것을 끌어들이기 위해 10년 동안 그리스연합군의 총공세에도 허물어진 적이 없던 성채를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허문다.

트로이아 인들은 아테나 여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목마주위에 둘러서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술을 바쳤다. 제례가 끝난 후 트로이아 인들은 제사가 잘 전달되었다는 확신과 그리스 연합군이 물러간 안도감에 마음 놓고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신다. 트로이아 인들이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자 새벽을 틔타 목마에 숨어있던 오디세우스와 그리스의 정예병이 쏟아져 내려온다. 그리고 섬 뒤에 숨어있던 그리스 선단이 트로이아로 돌아와 트로이아인들이 허물어 놓은 성을 습격한다. 그렇게 10년간의 전쟁이 끝난다.

그렇게 아름답고 튼튼했던 트로이 성은 완전히 함락된다. 그 직전, 필록테테스가 가져온 헤라클레스의 화살에 의해 전쟁의 원인이었던 파리스가 죽는다. 헤라클레스의 화살은 전쟁의 시초였던 파리스의 목숨을 거두는 역할은 한 것이다. 그렇게 이 지루했던 10년의 전쟁, 그리스문명이 청동기에서 철기로 접어들었던 시기의 가장 참혹했던 인간의 전쟁 트로이아 전쟁이 막을 내린다.